

Open Doors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273 | 2025 JANUARY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 시편 119:105 -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 데살로니가전서 5:16-18 -

칼럼

- 무엇보다 진짜 복음(福音)으로 다시 시작하자!

박해 뉴스

- 롤라의 이야기 - 아크타쉬의 이야기

현장 스토리

- 사랑이 전달되다 - 재봉 사업

박해와 선교현장

-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북한선교현장

- 이끄심: 시작은 어머니로부터 (8)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Heart To Heart

- 월드와치리스트 발표회에 초대합니다
- 성경대학시리즈 (Mission Bible College)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OpenDoors
인애 사랑의 문을 열어주세요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5년 01월호 | 통권 273호 |

등록번호-증랑,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업)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조남준, 임훈희,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한로이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섯별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후원하기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차

- 04 칼럼 - 무엇보다 진짜 복음(福音)으로 다시 시작하자!
- 06 박해 뉴스
 - 롤라의 이야기 - 아크타쉬의 이야기
- 09 현장 스토리
 - 사랑이 전달되다 - 재봉 사업
- 13 박해와 선교현장 -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 19 북한선교현장 - 이끄심: 시작은 어머니로부터 (8)
- 22 Heart To Heart
 - 월드와치리스트 발표회에 초대합니다
 - 성경대학시리즈 (Mission Bible College)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Heart To Heart

월드와치리스트 발표회에 초대합니다.

WWL 2025 발표회에 한국교회 선교 지도자들을 초대합니다. WWL 발표 32주년을 맞이하여 국제오픈도어 전 부총재 에버트 박사님을 모시고 WWL의 선교 전략적 의미를 돌아봅니다. “오픈도어는 왜 WWL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는가? WWL가 오픈도어 사역을 어떻게 확장시켜 왔는가? 그리고 WWL가 한국교회 선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사: Dr. Evert Schut(에버트 야곱 슈트 박사)
- 네델란드, 전 오픈도어 부총재

에버트 박사는 국제오픈도어선교회에서 40년 동안 일했으며, 주로 사역필드 최고책임자로 섬겼습니다. 현역 시절 전세계 90여 개국을 방문하여 박해 받는 교회를 지원한 풍부한 사역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 2025년 1월 15일(수) 오전 10시~12시

장소: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21(서초동))

사랑의 교회 미션센터(북쪽) 4층 401호)

복음에 적대적 국가에서 40년 동안 사역한 에버트 박사의 풍부한 경험과 WWL의 축적된 연구자료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선교담당 목사님, 선교위원장, 선교를 꿈꾸는 분들 그리고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오픈도어 모든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무엇보다 진짜 복음(福音)으로 다시 시작하자!

신현필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福音)은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보물(寶物)이다. 복음은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진리 위에 뛰어난 최고의 진리(眞理)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能力)이요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계시(啓示)다(롬 1:16; 엡 3:10). 하여, 바울 사도는 항상 (1)복음을 최우선시하며 (2)온 힘을 다해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하려고 심혈을 쏟았다. 심지어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게는(자기 자신을 포함하며) 저주(詛呪)를 선언하기도 했다(고전 15:3; 골 4:4; 갈 1:8, 9)

각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복음의 청지기(Steward)다. 하나님은 성령(聖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보물(寶物)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딤후 1:14). 진짜 충실한 청지기가 되려면, 복음 연구에 몰두하고 최선을 다해 진리를 깨우치고 살려고 힘쓰며 그 내용을 굳게 지키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딤후 4:15).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가 전하는 바를 듣는 사람들을 구원(救援)할 수 있다(딤후 4:16)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복음'은 '좋은 소식(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뜻하는 헬라어 '유앙 겔리온'(euangelion)에서 유래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 완성된 구원 사역에 관한 총체적인 메시지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곧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분과 동등하신 성자께서는 자원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다. 그리고 성부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 에 잉태되어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라는 신분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다(행 2:23, 히 1:3, 빌 2:6, 7, 눅 1:35).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셨다(히 4:15). 그리고 마

침내 때가 되자, 그분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되셨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으며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셨다(벧전 2:24, 3:18; 사 53:10).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신지 사흘 후에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부활과 승천은 성부께서 성자의 죽음을 속죄의 희생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공표하는 사건이다.

예수님은 [1]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셨고, [2]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으며, [3]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눅 24:6, 롬 1:4, 4:25). 부활하신지 40일 후,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오르시어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고 장차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히 1:3, 마 28:18, 단 7:13, 14). 지금 그분은 성부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눅 24:51, 빌 2:9-11, 히 1:3, 7:25). 하나님은 자신의 부패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며 그분과 화목하게 하신다(마 1:15, 롬 10:9, 빌 3:3).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소홀히 하는 데서 온갖 병폐들이 비롯된다. 타락한 세상은 복음에 무관심하다기보다 복음에 무지(無知)하다. 복음의 핵심 주제는 (1)하나님의 공의, (2)인간의 철저한 타락, (3)속죄의 피, (4)참된 회심의 본질, (5)구원 확신의 성경적 근거 등이다. 그러나 현재 강단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는 설교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교회는 (1)복음을 몇 가지 신조로 축소하고, (2)회개를 인간의 결정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3)"죄인의 (영적)기도"를 드리지만 하면, 곧바로 구원받았다고 선언한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축소하면서 많은 폐해가 발생했다.

첫째,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강박해졌다. 오늘날 "회심자"들 가운데에는 교회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들은 종종 다시 타락하거나 죄의 습관에 매여 속된 삶을 일삼는다.

둘째, 축소된 복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집합체로 교회를 전략시킨다(딤후 1:16). 이런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공동체가 아니다. 참된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것이다.

셋째, 축소된 복음은 최근의 문화적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발한 마케팅 전략을 구축한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복음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태도를 부추긴다.

넷째, 축소된 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온전하지 못한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지 않은 속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권징을 소홀히 하는 탓에 그들은 어떠한 책망이나 훈육도 받지 못한 채 교회 안에 머문다. 그로 인해 교회는 (1)순결함과 (2)명예를 잃고, 하나님의 이름은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롬 2:24).

목회자든 평신도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딤후 1:11)이 온전하지 못한 복음으로 대체되는 것을 뻔히 지켜보면서도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 '유일하고 참된 복음'을 회복해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해주는 것은 복음의 청지기인 우리의 의무다.

이 글을 통해 복음의 (1)아름다움과 (2)지혜, (3)구원하는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복음을 회복하여 지난 30년 동안 오픈도어 사역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변함없이 헌신하고 희생해 오신 모든 후원자들과 동역자들에게 모두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 남은 생애 하나님이 큰 영광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한다.

WEEKLY

한국오픈도어 모바일 주간 소식지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 통해
매주 전세계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h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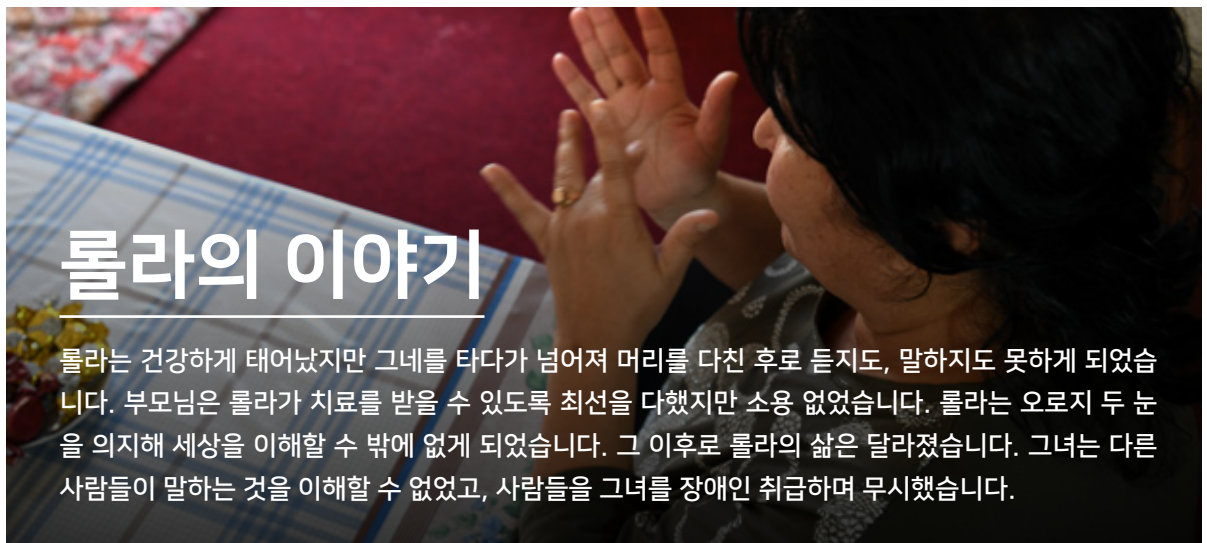
고요한 증인 - 중앙아시아의 청각장애인 전도사들

지난 몇 년 동안의 청각장애인 교회 공동체 성장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회의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간 신약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앞으로 만날 청각 장애인 전도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수용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그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사역을 기쁘게 하고 있지만 시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나아가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였지만, 돌아갈 수 있는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들과 같은 중앙아시아의 성도들은 폭력, 체포, 그리고 구금과 같은 위협을 항상

겪습니다. 이들은 대가를 감수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청각장애인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려다가 번아웃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역과 침 가운데 인도하심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픈도어는 실제로 수어,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고 소득 창출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 공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청각장애인 공동체를 돕는 파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소녀와 여성들이 학대를 당하며 경험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사역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롤라의 이야기

롤라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그네를 타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롤라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롤라는 오로지 두 눈을 의지해 세상을 이해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롤라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사람들을 그녀를 장애인 취급하며 무시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 가운데서는 청각 장애를 신으로부터 오는 저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상황을 가족의 수치라고 여겼어요. 제가 청각 장애인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도록 일반 학교에 보내셨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학교로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힘들었던 그 시기에 한 형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기독교인이

었고 저에게 교회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저는 교회에 가서 많은 청각 장애인분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얘기를 나누고 웃고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했어요. 저는 더 자주 교회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하면서 주위에 친척들과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었고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



어요. 그래서 저는 2014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영접했어요.” 롤라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많이 갈등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굳건해졌습니다.

롤라가 개종 할 당시, 그녀는 이미 무슬림 남성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가족 중에서 유일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개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노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은 매우 분노했어요. 그는 저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빼앗고, 던지고, 모든 것을 부셨어요. 저를 많이 때렸고 저는 남편의 반대로 교회에 나갈 수 없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기독교인처럼 살아갈 수 없었어요. 무슬림처럼 생활해야 했죠. 몇 년이 지나고 저는 남편에게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폭행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몇 번 나갔지만 포기해야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척들은 그녀가 종교와 전통을 배신했다며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녀를 지지한 사람은 기독교인 친구 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녀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기도와 말씀으로 격려해주었습니다. 앞 길이 캄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롤라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그녀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또한 위로이죠. 두려움과 걱정이 들때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세요. 저는 그 힘든 시기를 지나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때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녀는 아들과 남편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롤라는 삶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이제는 그분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 특별히 그녀와 같이 상황이었던 청각장애인들에게 다가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힘들지만 그것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항상 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약할 때 고통 받으신 주님을 기억해요. 저는 다시 힘을 얻어요. 저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마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오픈도어는 파트너들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로 중앙아시아의 청각장애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수어 교실, 생계 수단 기술 훈련, 그리고 청각장애인 성도들이 함께 만나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기도제목

- 롤라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롤라는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속 중보할 것입니다.
- 롤라의 남편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는 여전히 무슬림이지만 그가 계속해서 롤라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롤라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더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반응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아크타쉬의 이야기

아크타쉬는 어느 때처럼 동료의 집에서 청각장애인 30명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 전부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경찰관 두 명이 앞문으로 들어오자 심히 놀랐습니다. “저는 두려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가운데 성경이나 의 심스러운 물건은 없었어요. 그들은 저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어요. 다행히도 저는 이곳 출신이었고,

동료는 저희가 동창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때마침 식탁에 음식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셨어요. 위험은 늘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아크타쉬는 청각장애인들을 돌보다가 경찰관에게 심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소명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희 청각장애인들은 어디서나 제외돼요. 청각장애인으로 사는 것은 어려워요. 저는 청각장애인으로서 사랑도, 관계도, 또는 부모님과 교제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저의 꿈, 계획, 그리고 소원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아크타쉬는 외로워하던 중 한 청각장애인 형제를 만났고, 그는 예수님과 청각장애인 공동체에 대해 소개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었어요. 저는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4년이 지나 2003년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개종을 했어요. 그 때 부터 저의 삶을 변화되기 시작했죠. 저는 나쁜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들은 저를 이용했어요. 저는 피부 질환도 앓았는데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완전히 치유 되었어요.” 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기적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의 삶 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의 삶도 변화되는 것을 보며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청각장애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장애는 더 이상 방해 요소가 아닌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사랑과 수용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중앙아시아에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대가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기로 합니다.

“저는 금지 사항이 많다는 것도, 법도 알아요. 기독교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저는 집에 앉아서 청각장애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예비해두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갈거예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는 저를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믿어요. 저는 가까이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더 멀리 사는 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섬기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면 그들은 정말 갈급해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그분은 저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오픈도어는 아크타쉬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청각장애인 공동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기도제목

- 아크타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아직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청각장애인들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아크타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위험한 길들을 다닐 때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 경찰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 비밀리에 모일 때 지켜주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현장 스토리

사랑이 전달되다

중앙아시아의 청각장애인 기독교인들이
전세계 교회 공동체로부터 편지를 받다

지난 2년간 오픈도어는 동역자들로부터 중앙아시아의 청각장애인 성도들에게 전달할 편지와 그림을 받았습니다.

본 캠페인은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고 흔히 소외되고 혼자인 것 처럼 느끼는 중앙아시아의 많은 청각장애인 기독교인들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시받고 차별에 직면할 수 있으며, 많은 이들이 구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에 수입이 없습니다. 그들은 읽거나 쓰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교육에 대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무슬림 배경의 청각장애인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을 이유로도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박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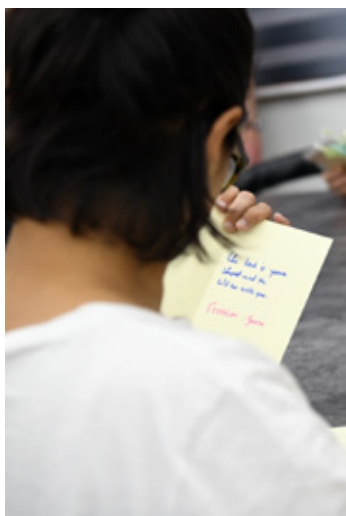
얀이 편지를 전달하다.

전세계 기독교인들로부터 천 통이 넘는 편지와 그림이 도착했습니다. 오픈도어 중앙아시아 파트너들과 소통하고 있는 얀 드프리스*가 나누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과 편지들을 보니 정말 격려가 되었어요. 하나하나가 중앙아시아의 청각장애인 기독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편지 번역 작업.

2023년 중순, 첫 편지 묶음이 도착했습니다. 얀이 말하기를, “저는 그 공간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싶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이 발견되면 그들은 박해를 받거나 차별을



당할 수도 있어요. 편지는 영어에서 현지 수어로 번역되었어요. 편지가 주는 반응과 대화, 그리고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전세계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결되어 간다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자시며 그분은 당신과 함께하실거예요.”

편지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이곳 저곳에 전달되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재봉 사업

소액 신용 대출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청각장애인 기독교인들이 도움을 받다

중앙아시아의 많은 청각장애인들은 소외되고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흔히 무시받고 구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에 수입이 없습니다. 그들은 읽거나 쓰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교육에 대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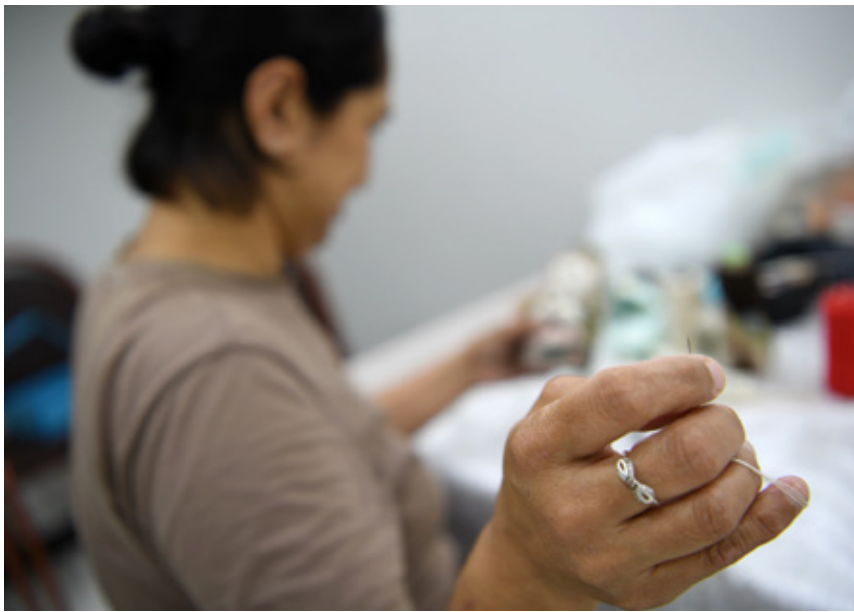
무슬림 배경의 청각장애인 기독교인들은 장애로 인해 사회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을 이유로도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박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픈도어는 현지 파트너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및 훈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소득 창출 훈련, 컴퓨터 기술, 휴대폰 수리 기술, 뷰티 & 메이크업 훈련,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아닌 성인/어린이들을 위한 수어 훈련.

오픈도어에서 지원하는 여성들은 자신만의 작업실을 시작할 소액 대출과 직업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은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을 조사하고, 필요한 재정을 계산합니다. 대출을 3년 안에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지역 시장과 비지회에서 팔 예쁜 인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전도사인 라나*는 인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가지고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는 동시에 재봉 작업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나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를 신의 저주라고 보는 중앙아시아 가정들과는 다르게 라나의 부모는 그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슬프게도, 그들은 그녀를 청각장애인으로서 받아들였지만, 기독교인으로서서는 아닙니다.

그녀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는 힘들었고, 남편에게는 속았습니다 - 그가 결혼 전에는 그녀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척 했지만 결혼 후에는 교회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 마침내 상황을 극복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소액 대출을 통해 지속 가능하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직업이 없었고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습다. 이제 이곳에서 일하며 인형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라나

여성들은 아름다운 의복, 가방, 그리고 악세사리도 만들고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새해에는 중앙아시아의 박해 받는 성도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세요

한국오픈도어 자동이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CMS 정기후원 선택



[자동이체 신청하기]

한국오픈도어 계좌 입금

우리은행 1005-201-8849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오픈도어 문의

전화: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Heart To Heart

HAPPY NEW YEAR

2025

2024년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오픈도어선교회와 함께 박해 받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지지해주신 모든 동역자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삶의 희망과 목적을 회복해 감을 믿습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도
힘차게 함께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기독교 박해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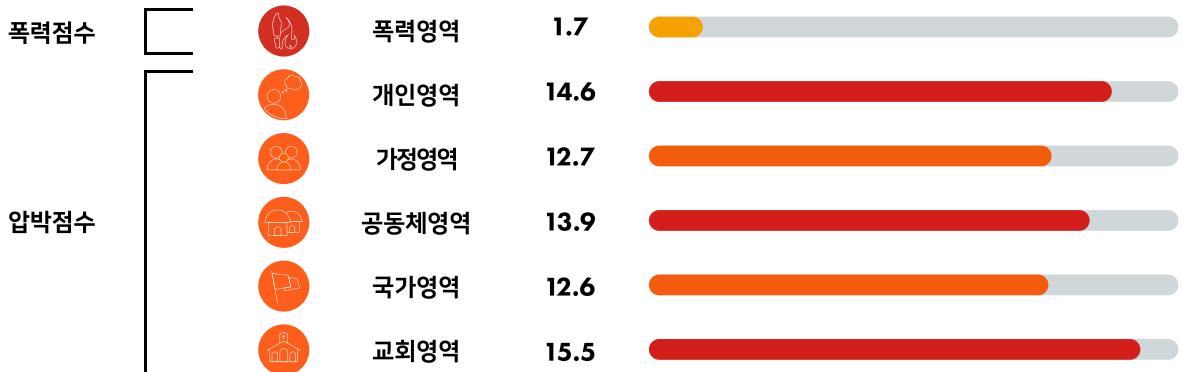
25위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Alamy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총합은 100점이다 (6 x 16.7=100)

중요한 발견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어떤 형태로든 믿음에 대한 협박과 폭력을 경험한다. 러시아 정교회가 정부에게 크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과 접촉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와 가족, 그리고 공동체에서 가장 많은 폭력을 당하는 집단은 무슬림 출신의 토착민 기독교 개종자들이다. 등록되지 않은 교회에 속한 기독교인의 경우는 경찰 연행, 협박, 체포, 벌금형 때문에 고통 당한다.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국가 정보

지도자 : 사브카트 미르지요제프대통령

인구 : 34,809,000 명

기독교인 수 : 352,000 명¹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352,000	1.0
이슬람교	33,408,000	96.0
불가지론	746,000	2.1
무신론	192,000	0.6

출처²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부터 미르지요제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으며 야당 운동이나 언론의 독립은 금지되어 있다. 2023년 5월 1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국민 투표 결과를 발표한 내용에는, 사브카트 미르지요제프 대통령이 2040년 까지 재임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IRFR 2022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의 1992년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와, 정부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법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또는 도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종교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미등록 종교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종교 출판물의 내용, 제작, 배포, 보관에 대한 공식 승인을 요구하며, 개종 및 기타 선교 활동을 금지한다. 또한 종교 법은 종교 단체의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설 종교 교육은 금지하고 있다.” 라고 설명한다.

미국 국제 종교자유 위원회 (USCIRF)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종교 자유에 대한 사안 때문에 특별 감시 대상국으로 바뀌었다. 2021년 7월에는 '양심과 종교 결성의 자유'에 관한 법률이 새로 변경되었다. 종교 단체의 등록 절차는 쉬워졌으나, 미등록 종교 활동에 대한 형사 처벌은 여전히 있다.

등록된 교회들은 조금 나아진 점이 있으나 다른 단체에 대한 상황은, 특히 무슬림 출신의 개종자들에게는 바뀐 것이 없다. 기독교인들은 급습, 체포, 압박에 표적이 되고 있다.

비록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종교가 이슬람이며, 수니파가 주류를 이루지만, 우즈베키스탄을 무슬림 국가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소련의 70년 통치 기간 동안 국가가 이슬람을 강하게 압박 하였으며, 국민들은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대신 이슬람의 문화를 따른다. 소수 집단인 기독교인은 많은 교파 분열로 인해 힘이 없는 상태이다.

세계 기독교 통계 (2023년 3월)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파는, 러시아 정교회, 아르메니안 사도 교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교회이다.

¹ Data source: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² Data source: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정부가 압박하는 수준은 나라 전역에 걸쳐 거의 동일하나, 개종자들을 대하는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오는 압박은 도시의 외곽 지역, 특히 페르가나 분지에서 더 심하다.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국외 거주자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는 기독교 박해 지수 점수 기록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러시아 정교회는 정부가 만든 제약 사항들을 지키기 때문에 거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교회 예배는 감시 받을 수 있으나 방해 받지 않고 행해지며 성도들은 체포될 두려움 없이 모일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자료를 인쇄하거나 반입하는 것은 제한된다.

기독교 개종자들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국가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고,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압박에 시달린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의 기독교인들은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로서,

개종자들 다음으로 가장 많이 표적 공격이 되는 대상이다. 복음주의와 오순절 교파는 습격, 위협, 체포와 벌금형으로 시달린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근원

독재 정치:

국가가 통제하는 기관 외에는 어떤 종교 활동들도 허락되지 않는다. 개신교인들은 종종 "극단 주의자들"로 분류되어 국가 정치 체제의 정보를 염탐하거나 파괴하려는 스파이들로 여겨진다. 이런 시각으로 인해 개신교들은 통제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근절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씨족의 탄압과 함께 엮여 있는 이슬람의 탄압:

토착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이전 신앙으로 회유하기 위한 압박과 물리적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개종자들은 가족에 의해 감금당하고 지역 사회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심지어 쫓겨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개종자들은 이들의 신앙을 숨기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에서 가부장적인 규범은 여성이 남성 보다 하위에 있으며, 가족 체계에서 굴종을 요구한다. 여성은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없고 개종은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여성 개종자들이 가족으로부터 겪는 가택 연금에 흔한 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된 상태이다. 개종자를 이슬람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사회 연결 망, 특히 기독교 연결 망에 접속하는 길은 끊어진다. 납치, 강제 이혼, 강제 결혼은 흔하고, 결혼 생활 내에서 폭력은 문제로 인정되지도 않고 정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사회 연결 망 접속 거부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 연금)
- 폭력--신체적 / 성적 / 심리적 / 언어적

남성

대부분이 남성인 교회 지도자들은 권리 침해에 흔한 표적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벌금형이나 구금, 출국 사증 거부, 또는 가택 연금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 전체에 두려움을 파급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다. 등록되지 않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특히 모욕과 구타를 당한다. 기독교 남성들은 거듭되는 불평등한 대우로 인해 승진이 거부되고 일자리를 잃으며 국가로부터 감시를 견뎌야 한다. 또한 현지 무슬림 공동체는 기독교 사역을 방해하고 병역으로 남성을 괴롭힌다. 남성 개종자들은 언어적,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학대에 직면한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교육의 차별과 괴롭힘
- 일/ 직업/ 사업으로 경제적 괴롭힘
- 벌금으로 경제적 괴롭힘
- 정부에 의한 투옥
- 여행 금지 / 이동 제한
- 폭력--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 점수
2024	25	71
2023	21	71
2022	21	71
2021	21	71
2020	18	73

WWL (월드 와치리스트)는 지난 4년 동안 71점으로 동일하다. WWL 2024의 점수에서는 개인과 국가, 교회의 영역에서 약간의 감소가 있었으나, 가족과 공동체 영역에서는 동일하다. 폭력 지수도 동일하다. 무슬림 가족과, 친구, 마을 주민들은 주로 개종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정부는 교회 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기독교인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미르지 요제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3년 4월 9일:** 부활절 일요일, 경찰은 카르시에 있는 침례교회 협회를 급습했다. 남부 카슈카다리아 지역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 동안, “경찰과公安들이 기도처의 문을 부수고 잔인하게 행동했으며 세 명의 교인을 체포했다.” 라고 침례교인들은 같은 날 포럼 18에 말했습니다. (포럼 18, 2023년 4월 11일)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구금 당한 기독교인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당한 기독교인	공격받거나 폐쇄된 교회나 기독교 건물
2024	10	60	1
2023	0	48	0

이 표는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의 몇 가지 범주 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의 폭력 영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 상징적인 어림 수가 주어졌고 (10*, 100*, 또는 1000*)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개인 영역

개종자들은 가족을 포함하여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이미 매우 위험한 일이다. 국가는 이러한 대화를 전도로 간주하여 체포와 투옥으로 처벌할 수 있다. 기독교 관련 자료를 소지하는 것이 발각되면 가족으로부터 추방, 지역 사회의 괴롭힘, 그리고 정부 체포에 이를 수 있다.

가족영역

대부분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무슬림이다. 그 결과, 확대된 공동체인 가족, 친구들, 지역 사회는 개종자의 자녀에게 이슬람의 가르침을 받게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반 종교적 선전으로 학교와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요한다. 대가족과 국가로부터 소외 당하고 적대적으로 취급을 받으며 모든 교회의 청소년 사역은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종자들이 자녀에게 기독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가정 뿐이다.

공동체영역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사회와 국가로부터 끊임 없이 포위 공격을 받고 있다. 개종자들은 가족, 지역사회,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경찰은 정기적으로 개종자들을 검문하고 수색하여 위협을 가한다. 개신교 단체는 정부에 자주 고발되고 경찰의 급습, 벌금, 체포,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영역

종교 단체들은 정부에 등록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미등록 단체의 종교 활동은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 법은 또한 대중 연설과 전도를 금하고, 종교 서적을 검열하며, 종교적 자료는 개인 소지로 제한하나, 기독교인의 집에 급습하여 벌금, 교정 노동, 징역형 등의 처벌이 내려지기도 한다. 당국은 일반적으로 면책 특권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며, 무슬림 단체가 개종자와 기독교인들이 전도할 때 해를 가하는 일에는 결코 처벌받지 않는다.

교회영역

주일 학교를 포함해 청소년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개종의 권유는 형법에 의해 최대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받는다 (정보원: 2017년 우즈베키스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그러므로 교회가 개종자들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우즈베키스탄은 다음 국제 조약들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 방지 협약(CAT)
4. 여성 차별 철폐 협약 (CEDAW)
5. 유엔 아동 권리 협약 (CRC)

우즈베키스탄은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이유로 죽임을 당한다. (ICCPR 제6조)
- 비전통적인 교파 출신의 교회들은 습격을 당하고, 예배가 방해를 받고, 참석자들이 임의로 체포를 당한다 (ICCPR 제9, 18, 21조)
- 종교 문헌의 소유와 협의는 국제적으로 허용된 제약을 넘어서 극심하게 제한된다 (ICCPR 제18, 19조)
- 기독교 여성 개종자들은 납치를 당하거나 무슬림 남성에게 강제 결혼을 당할 위험을 감수한다 (ICCPR 제23조, CEDAW 23조, 제16조, ICESCR 제10조)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모든 종교 집단은 무슬림, 여호와의 증인, 유대인, 바하이교를 포함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국가 감시와 억압을 받고 있다. 종교 문제 위원회 (CRA)는 이 문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오픈도어의 우즈베키스탄 사역

오픈도어는 중앙아시아 신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감옥에 수감되고 가족들과 지역 사회로부터 제외되어 생계와 고용이 박탈당할 때 즉각적인 원조를 제공한다. 우리는 다음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박해 받는 교회를 강화한다.

- 문서 배부
- 기도 지원
- 존재 사역
- 성경적 훈련
- 사회와 의료 사역
- 어린이/ 청소년 훈련
- 직업 훈련
- 여성 사역
- 사회 경제적 개발 프로젝트



북한선교현장

김서윤 전도사

이끄심: 시작은 어머니로부터 (8)

림강시 기차역 앞에서 우리는 난생 처음 도착한 중국의 도시 모습에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살폈다. 그러다가 역 근처에 “림강조선족식당”이라는 간판을 보았다. 국경지역 도시나 마을에는 조선말을 하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고 간판도 한글로 적힌 것이 많지만 그런 사실을 잘 몰랐던 나는 조선말 간판이 신기했고, 오랜만에 보는 한글이 반갑기도 하고, 또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기쁨에 그 식당으로 뛰어 들어갔다. 다른 가족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식당을 향했다. 우리는 우리의 물골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몇날 며칠 제대로 먹지 못해 허기진 우리는 식당 안에 모든 것이 신기했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감탄사가 나왔다. 그 식당의 주인아주머니는 한참을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어머니! 세상에! 저기... 북조선에서 오셨지요?”라고 물었다. 눈에 보이는 꼬락서니나 말하는 투나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은 너 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너무 놀란 우리 가족은 동시에 “아니예요!”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아주머니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 딱 봐도 그런데... 빨리 이리 오시오. 지금 여기 이려고 있으면 안되오.”라며 우리를 식당 뒤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는 방 하나를 열어주셨다. 우리는 주인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 그 여관방에 들어갔다. 방에서 엄마의 발을 살펴 본 아주머니는 어찌다가 이렇게 됐냐며 놀라셨다. 어머니께서는 돈을 좀 줄테니 진통제를 구해줄 수 있는지 부탁하셨고 아주머니는 알겠다며 문을 잠그

고 나가셨다. 한시를 놓은 우리는 따뜻한 방 안에서 꾸벅꾸벅 잠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께서 돌아오셨다. 아주머니는 어머니에게 쓸 진통제와 함께 허기진 우리를 위해 죽을 쑤서 상을 차려주셨다. 우리는 죽으로 모처럼 제대로 요기를 했다. 진통제를 드시고 쉬면서 어머니 발의 통증도 점차 가라앉았다. 우리는 오랜만에 깨끗하게 씻고 목은 때를 벗겨냈다. 입고 있던 옷도 아주 해어지고 엉망이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여러 크기의 옷을 한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다.

한 숨 돌리신 어머니께서는 우리의 목적지인 길림시를 가기 위해 아주머니께 도움을 요청했다. 아주머니께서는 무슨 일로 길림시에 가려고 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머니께서는 거기 친척이 있어서 도움을 받으려 한다고 얼버무리셨다. 그러고는 다시금 도움을 요청하며 가지고 계시던 돈 얼마와 작은 금덩어리 하나를 아주머니께 드렸다. 아주머니께서는 바로 기차표를 구매해주셨다. 다행히 빠른 기차표가 있었지만 이곳은 시골이라 길림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었다. 기차의 종점은 통화시(通化市)였는데 그곳에 내리면 다시 한 번 기차를 타야 한다고 알려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우리는 무리 없이 기차를 탈 수 있었다.

처음 경험하는 중국의 기차는 모든 것이 신기했다. 특히 승객들이 열차 안에서 삶은 차단(茶蛋)을 먹고 해바

라기씨를 엄청 빠른 속도로 까서 먹는 모습과 그 소리가 이상하게 재미있었다. 그렇게 씹 없이 사람 구경을 하다 보니 어느덧 종점에 다다랐다.

이제 다시 기차표를 사야했는데 중국말을 모르니 어떻게 표를 구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어떻게 하면 기차표를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역의 의자에 앉아있는데 의자 뒤편에서 조선말이 들렸다. “하... 이제 들켰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나. 당신 안까지(아내)한테 들리지 않게.”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해? 이 동네에서는 이제 더는 못산다.” 조용히 듣고 있으려니 아무래도 내연관계의 커플인 것 같았다. 그 사람들 사정은 알바 아니었지만 조선말 하는 사람을 찾은 것이다. 우리는 그 커플에게 기차표를 구매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쥐어주었다. 그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더니 흔쾌히 표를 대신 구매해 주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지 않고, 둘이서 속덕속덕 하더니 자기들도 길림시로 가야겠다며 같이 기차표를 구매했다. 그렇게 같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들은 내내 우리에게 길림에는 왜 가는지, 친척들이 거기 사는 것이 맞는지, 친척이 연락은 되는지 등을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친척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면 크게 한 톨 낼 것이니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친척을 찾지 못하게 되면 산둥에 가서 일할 수 있다, 그곳에는 여성분들이 일하기 좋은 일자리가 많다’며 우리를 꼬드겼다. 이미 기차역에서 자신들의 행로를 고민하던 둘의 대화를 뒤에서 들었던 우리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닌 다른 공공이속이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도 우리 가족을 어디론가 팔아먹으려는 심산일 것이다. 도움을 받았고 우리 신분이 불안하다보니 겉으로는 티를 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때어낼까 고민하였다.

그렇게 기차를 타고 길림시에 도착했다.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목적지에 한 발 앞까지 온 것이다. 우리 가족과 그 커플은 택시를 잡아탔다. 우리는 친척이 대한민국 영사관 근처에 있다고 돌려대었기 때문에 그 커플

은 택시기사에게 영사관으로 가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도대체 영사관을 찾질 못했다. 그렇게 도시를 거의 두 바퀴를 돌았지만 헛수고였다. 어머니는 왜 영사관이 없는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안절부절 못하셨다. 이 와중에 그 이상한 커플은 우리에게 친척집에 가기 어려워졌으니 자신들을 따라오라고 계속 강하게 이야기하여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할 수 없이 택시에서 내린 우리는, 우리를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려는 그 커플에게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라며 근처에 조선말로 ‘연희조선족식당’이라고 적힌 간판을 단 식당을 가리켰다. 빨리 볼일 보고 오라는 말에 우리 가족은 그 식당에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주인아주머니에게 도와달라고 애원을 했다. 주인아주머니는 금세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를 가게 안쪽 방에 데리고 가서는 조용히 있으라고 하시고 문을 잠그셨다.

잠시후, 우리가 도통 나오지 않자 그 남녀 커플이 가게로 들어왔다. 아주머니와 그 커플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커플은 아주머니를 추궁하며 우리의 행방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우리가 왔다가 볼일 보고 뒷문으로 나갔다고 돌려대셨다.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 커플이 아주머니를 수상쩍게 여기며 추궁하자 아주머니는 가게 장사하는데 방해하지 말라며 큰소리 치셨고 결국 그 커플은 가게에서 쫓겨났다. 이런 상황을 소리로 듣고 있던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빠진 이후, 아주머니는 우리가 있는 방의 문을 여셨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 난생처음 보는 음식들로 한상 부러지게 차려 주셨다. 그동안 제대로 음식조차 먹지 못했던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 것이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진수 성찬에 눈이 뒤집혀서 허겁지겁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다. 대부분의 음식에는 향신료가 첨가되어 자극적이었고 기름진 음식들로 한 가득이 었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났다. 그렇지만 결국 얼마 먹지도 못

하고 포만감과 느끼함에 수저를 내려와야 했고, 오랜 기간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다가 갑자기 과식을 하는 바람에 우리 가족 모두 배탈이 나고 말았다. 그렇게 차례로 화장실로 들락날락하는 것을 본 아주머니께서는 자신이 차려준 음식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게 되었다고 속상해 하셨다.

우리를 도와주신 식당 주인아주머니를 우리는 '은명이 이모'라고 불렀다. 이모는 식당일을 마치고도 주로 식당 뒤편 방에서 쉬셨고 본인 집에는 잘 들어가지 못하셨다. 날이 어두워오고, 식구는 많고, 당장 지낼 곳은 없었던 우리를 위해 이모는 선뜻 자신의 집을 내어 주셨다. 건강상태도 좋지 못했고 물골도 말이 아니었던 우리에게 은명이 이모의 친절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어머니와 동생들은 이모가 마련해준 집에 머물렀고, 나는 식당에서 이모 일을 도와드리며 이모와 함께 지냈다. 이모는 특별히 나를 예뻐해 주셨다. 나는 아직도 그 사랑을 잊지 못한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이모와 나는 저녁도 먹고 쉬면서 이모가 하시는 이야기를 들곤 했다. 그리고 낮에 식당이 붐비는 바쁜 시간이면 나도 이모를 도와 음식 서빙도 하고 갑자기 필요해진 식자재나 물품들을 인근 가게에서 사오기도 했다. 식사 시간이 지나 가게가 한적해지면 일부터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나에게 먹이기도 하셨다. 이모는 단골손님들이나 이웃에게 나를 시골에서 올라온 조카라고 소개했다. 이모와 나는 정말 가까운 가족과 같았다.

이모는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남편과는 이혼하고 딸을 홀로 키우셨다. 혼자 돈을 벌어서 고등학생 딸을 앞으로 대학까지 뒷바라지해야 했기에, 이모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다.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하신 이모는 저녁이 되면 꼭 어딘가가 아파와 잠을 이루지 못하곤 하셨다. 나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모의 몸을 마사지 해 드렸고 이모에게 힘내시라고 긍정적인 말도 해 드렸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러 가

시는 이모의 모습이다. 처음에는 이모가 어떤 활동이나 모임에 나가시는지 잘 몰랐다. 그래서 하루는 이모에게 예배는 어디에서 하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이모는 교회에 가신다고 하셨다. 당시 나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이모가 교회에 가시는 주일에는 밖에도 나가지 않고 혼자 방에 있으면서 이모가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렸는데 너무나 지루하고 심심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린 이모는, 교회에서 돌아오시면 나에게 성경말씀을 읽어주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때 나는 속으로 '이모가 많이 외로우셔서 어딘가에 기댈 곳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모를 더 이해하고 도와드려야겠구나...'하고 생각했다. 밤에 일을 마치고 이부자리를 펴 놓으면 이모는 꼭 성경책을 꺼내 묵상하셨고, 흥얼거리며 찬송가를 부르셨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하셨다. 그런 이모를 보고 있으면 하루의 고단함이 보이지 않고 참 행복해 보였기에 나는 늘 마음속으로 이모를 응원했다.

이모가 전문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거나 적극적인 전도를 하셨던 것은 아니었다. 또 같이 교회를 다니거나 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모의 신앙은 나에게도 소중하게 다가왔다. 이모는 사치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늘 하고 다니는 자그마한 십자가 목걸이가 늘 있었다.나는 커서 꼭 이모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다. 하루는 어떤 일로 힘들어하는 이모에게 힘이 되고 싶어서 "내가 어른이 되면 이모한테 꼭 순금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사 드릴게요" 라고 씩씩하게 말했다. 이제 막 10대 초반 소년인 나의 당돌한 이야기를 들으신 이모는 웃으시며 "너 밖에 없다" 하시고 나를 꼭 앉아주셨다. 그러면 나는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모 진짜 예요! 꼭 사 드릴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다. 그렇게 밤마다 웃고 울면서 이모와 함께 지냈던 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이 신비롭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우연이겠지만,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다.

(계속)



Mission
Bible
College

성경대학시리즈

성경이 말하게 하라!

셀프 스터디에서부터 국내 목회 현장,
해외 선교 현장까지

성경대학시리즈는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사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성경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현지인 성도를 영적 리더로 길러내고자 하지만
훈련과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현장,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건강한 성도들을 세wig가기를 원하는 목회현장,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려운 훈련 프로그램은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평신도를 위해

성경대학시리즈(Mission Bible College)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접하고 영적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교사가 앞에서 직접 가르쳐주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개인 묵상과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묵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성경 자료가 부족한 선교지를 위해 성경 본문과 참고 자료들을 한데 모아 정리하여, 한 권의 책만으로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미션 바이블 칼리지는 4개 과정, 40여개 과목으로 계속 개발, 발간될 예정입니다.

※ 교재 구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 / 휴대폰 / 메일 / 카카오톡채널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2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20,000원 기타:	출금일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